

<b>관리번호</b>	<b>영남알프스 산림휴양벨트 조성</b>
3-1	

사업주체	사업성격	완료시기	투자성격	추진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산림휴양림담당 (☎ 5295)
시	계속	임기내	예산	협조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	조기원 (☎ 5296)
						담당자	예산담당 (☎ 5045)
						담당자	정재훈 (☎ 5048)

<b>중앙정부 지원 필요 여부</b>	국립밀양등산학교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	-----------------------

**【정책 목표】**

- 부울경을 아우르는 천혜의 절경 영남알프스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인프라 구축으로 배후인구 천만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는 대규모 산림휴양벨트 조성

**사업개요**

- 도래재 자연휴양림
  - 규모: 52ha/ 사업비: 100억원(국 25, 도 7.5, 시 67.5)/ 기간: 2017~2022(6년간)
- 치유의 숲
  - 규모: 53ha/ 사업비: 50억 원(도 32.5, 시 17.5)/ 기간: 2021~2024(4년간)
- 천황산 등산로 연결
  - 규모: 6.248km/ 사업비: 20억 원(도 13, 시 7)/ 기간: 2022(1년간)
- 밀양아리랑 수목원
  - 규모: 25ha/ 사업비: 97억 원(국 2.5, 도 34.55, 시 59.95)/ 기간: 2018~2023(6년간)
-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 규모: 10ha/ 사업비: 20억 원(도 13, 시 7)/ 기간: 2023~2024(2년간)
- 국립밀양등산학교
  - 규모: 연면적 2,114㎡/ 사업비: 50억 원(전액 국비)/ 기간: 2021~2023(3년간)
- 인공암벽장
  - 규모: 1개소/ 사업비: 30억 원(전액 국비)/ 기간: 2022~2023(2년간)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계	기투자	임 기 내					이 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6,700	13,137	23,563	10,043	9,710	3,810		
국 비	10,750	3,077	7,673	3,273	4,400			
도 비	10,055	2,326.5	7,728.5	3,815.5	1,436.5	2,476.5		
시 비	15,895	7,733.5	8,161.5	2,954.5	3,873.5	1,333.5		
기 타								

**쟁점 및 대책, 예산확보 방안 등**

- 정부이양(전환)사업인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신규사업)의 선정 및 ‘23년 사업비 지원 필요
  - 도 담당부서에 사전 사업 설명 및 필요성 제시 등을 통하여 신규사업 선정 건의 및 예산부서와 협력하여 도비 확보 노력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입기후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도래재 자연휴양림	■																
치유의 숲	■	■	■	■	■	■	■	■	■	■							
천황산 등산로 연결	■																
수목원	■	■	■	■	■												
숲속야영장			■	■	■	■	■	■	■	■							
국립밀양등산학교	■	■	■	■	■	■	■										
인공암벽장	■	■	■	■	■	■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도래재 자연휴양림	개소	개장	개장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치유의 숲	개소	개장	착공	공사	준공	개장	운영	
천황산 등산로 연결	개소	준공	준공	-	-	-	-	
수목원	개소	개장	공사	준공	등록	개장	운영	
숲속야영장	개소	개장	예산확보	설계	착·준공	개장	운영	
국립밀양등산학교	개소	개장	착공	준공	개장	운영	운영	
인공암벽장	개소	개장	착공	준공	개장	운영	운영	

**타 기관 협조사항**

- 산림청(남부청)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립밀양등산학교(인공암벽장 포함)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국립시설)

**기대효과**

-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여가시간 및 소득증대로 증가하고 있는 산림 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림휴양사업을 추진하여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